

우리 마을 정발산, 우리 손으로 가꾸자

글·사진 이규환(마두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외지인은 '일산' 하면 호수공원을 떠올리지만, 마두동 주민들은 정발산을 떠올린다. 마두동 주민뿐만 아니라 일산 주민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자주 찾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곳이 바로 정발산이기 때문이다.

지난 25년을 정발산자락에 살면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평일에는 서울에 있는 직장 집만을 오갔고 모처럼 맞이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집에서 쉬거나 기껏해야 호수공원 산책 정도만 했으니, 우리 마을이 자연환경과 잘 조화된 살기 좋은 마을임을 느끼지 못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직장을 퇴직하고 어쩌면 내 인생 후반기에 가장 뜻있고 가치 있는 봉사를 펼칠 수 있는 마두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매일 마을 이곳저곳을 도보로 걸어 다니다 보니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자원인 '정발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발산 가꾸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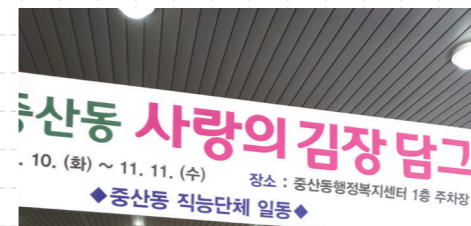
1차로 정발산 공원길과 연결되는 걷기운동 코스를 만들어 이를 '건강·소통 누리길'이라 이름 짓고, 직능단체, 공무원 그리고 관심 있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와 제안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참여예산 및 공모사업에 반영하여 개선하거나 지역 내 후원을 받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정발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노후화 및 추가설치가 필요한 표지판을 직접 제작하여 교체하고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중계도 설치해 정발산을 시민들의 '건강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즐거운 봉사활동

글·사진 이춘삼(중산동 통장)



칠순의 나이에 나는 우리 아파트단지의 통장 일을 보고 있다. 아주 즐겁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1년여 전이던가.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시민기자를 모집하길래 지원서를 냈지만, 아쉽게도 되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나이가 많다고 그랬나? 명색이 중앙일간지 기사를 지낸 나를 써주지 않으면 당신들 손해다'라고 중얼거리고 잊어버렸다. 그러던 차에 동네 통장을 뽑는다기에 응모해 위촉장을 받았다. 나이는 먹어도 아직 건강하고 시간은 있으며 먹을 것도 비축해둔 편이니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해도 무방한 일이다.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도 해봤다.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다. 정수기 판매일을 할 때는 '건강을 위해 정수기 사라는 게 뭐가 창피냐고' 생각하며 꽤 괜찮은 실적을 올렸다. 의용소방대원을 뽑는다기에 갔을 때는 관련법에 65세로 나이 제한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이 따지지 말고 고봉산 뛰어올라서 선착순으로 뽑자"고 일갈(?)하고 소방서 문을 나섰다.

각설하고 나는 요즘 통장 일이 즐겁다. 한 달에 두 번 통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주민등록 전입 사후확인, 민방위 소집 통지, 취학통지서 전달 등 주민센터 업무를 돕는 일을 한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도, 워크숍도 모두가 주춤한 상태다. 가을 김장철에는 부녀회가 주축이 돼 불우이웃돕기 김장행사를 했다. 대충하고 끝내겠거니 했는데, 웬걸. 모두 두 팔 걷어붙이고 아주 열심이었다. 김장재료도 하나하나 좋은 것으로만 써서 우리 집 김장김치보다 더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통장일 말고도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만드는 중산동 소식지의 시민기자 일도 한다. 내가 낸 아이디어로 일요일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소개, 우리 동네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일람표 등을 실었다. 버스노선 일람표 자료는 시 교통과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새삼 공무원들의 친절에 크게 감탄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젊은 남녀 직원들도 모두 밝아 기분이 좋다. 인감증명 하나 떼는 데도 급행료 붙이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일은 이제 옛일이 됐다.

